



뜨거운 동해안 더비... '포항 레전드' 격돌

K리그1 4R서 홍명보-김기동 사령탑 지략 대결 울산 이동준 vs 포항 송민규 '영건' 활약 기대

'포항 레전드' 사령탑의 맞대결로 더 치열해질 동해안 더비가 오는 주말 프로축구 K리그1을 달군다.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포항 스틸러스와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울산 현대는 13일 오후 4시 30분 포항 홈인 스틸야드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1 4라운드 맞대결을 한다.

포항 레전드 출신으로 올 시즌을 앞두고 울산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이 얽히고설켜 두 팀의 인연을 더 진하게 한다.

홍 감독은 1992년 포항에서 프로로 데뷔해 6년간 이 팀에서 수비수로 뛰

며 한국축구 최고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포항과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일본 J리그 무대에 진출했던 홍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포항으로 돌아와 약 1년간 더 뛰었다.

홍 감독은 포항에서 156경기를 뛰며 14골 8도움을 올렸다. 이후 지도자로서 영욕을 두루 맛본 홍 감독이 K리그에 돌아오면서 포항의 최고 라이벌 울산 지휘봉을 잡았다.

그를 상대하는 김기동 감독은 포항 팬들 사이에서는 홍 감독 버금가는 레전드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포항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

으나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부천 SK로 이적해 뛰다가 2003년 포항으로 돌아와 2011년까지 이 팀에서만 뛰고 은퇴했다. 2019년부터는 포항 사령탑에 올라 줄어든 구단 살림에도 매 시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었다.

포항이 배출한 한국 축구 최고 스타 감독과 포항이 낳은 포항 최고 감독이 지략 대결을 펼치게 된 셈이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에서 울산은 포항에 2승 1무 1패로 앞선다. K리그 첫 두 차례 대결에서 4-0, 2-0으로 완파했고, 대한축구협회 FA컵 준결승전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이겼다. 하지만 울산은 K리그1 우승 경쟁이 치열하던 리그 막판 마지막 맞대결에서 포항에 0-4로 완패했고, 이는 결국 전북 현대의 리그 우승으로 이어졌다.

절치부심하며 흥 감독의 지휘 아래 더 단단해진 선두 '울산'은 날카로운 이빨이 된 이적생 이동준(24)을 앞세워 개막 4연승에 도전한다.

포항에서도 '영건'이 골 사냥에 앞장선다. 지난 시즌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송민규(22)가 더욱 무리익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2018년 데뷔한 이래 울산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한 점은 송민규의 유난스러운 승부욕을 더욱 자극한다.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는 지금까지 172차례(K리그 167경기·FA컵 4경기·전국축구선수권 1경기) 치러졌다.

리그 통산 상대 전적에서 포항이 62승 50무 55패로 앞선다. 그러나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면 울산이 6승 4패로 우위에 있다.



로맨 "반가워 선수형!" SSG 추신수가 11일 오후 부산 사직구장에서 프로야구 롯데와 연습경기를 끝낸 SSG 로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SSG 추신수 취재 열기 '후끈'

연습경기차 사직 구단 방문 40개 매체·70여명 취재진 모여

'슈퍼스타' 추신수(39·SSG 랜더스·사진)가 자신의 고향인 '구도(球都)' 부산을 뜨겁게 만들었다.

추신수는 11일 경남 창원에서 자가격리를 마친 뒤 SSG 선수단의 연습경기 장소인 부산 사직구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SSG와 롯데의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추신수의 합류 소식을 전해 들은 수십 명의 팬이 경기장 인근에 몰렸다.

사인을 받으려는 팬들은 추신수의 도착 장소로 예상되는 선수단 주차장과 경기장 출입구 등에 삼삼오오 모였다.

취재진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날 사직구장에 40개 언론매체 7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오후 3시경 검은색 밴을 타고 사직구장 선수단 출입구 앞에 내린 추신수는 취재진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반갑게 인사했다.

추신수는 감회에 젖은 듯 밝게 웃었다. 마스크에 얼굴 절반이 가려있었지만, 초승달 모양이 된 두 눈만으로도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경기 전 소속팀 SSG와 고향 팀인 롯데 구성원들은 추신수의 합류 소식에 들뜬 모습이었다.

허문회 롯데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취재진이 (롯데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 같다"는 말에 "다들 추신수 보러 오신 것 아니냐"라며 웃었다.

김원형 SSG 감독도 "오늘 추신수가 합류하는데 벌써 마음이 설렌다"며 "나쁜만 아니라 선수들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현 올해 MLB 깜짝 스타 될 것"

CBS스포츠 판타지 야구 예측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2년 차를 맞은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올해 깜짝 활약을 펼칠 선수로 선정됐다.

미국 CBS스포츠는 11일(한국시간) 가상 야구 게임 '판타지 베이스볼'의 2021시즌 최고의 슬리퍼로 김광현을 꼽았다.

슬리퍼는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갑자기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선수를 의미한다.

CBS스포츠는 스포츠 베어링 업체 스포트라인이 2021시즌 메이저리그 일정을 1만번 시뮬레이션해 예측한 선수들의 성적을 바탕으로 김광현이 올

시즌 깜짝 스타가 될 것으로 점쳤다. 일단 이 매체는 김광현이 한국에서 12시즌을 보내면서 136승 77패 평균 자책점 3.27을 기록하고, 2년 11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지난해 세인트루이스에 입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광현이 지난해 4가지 구종을 무기로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62를 기록하며 한국에서의 활약을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어나갔다고 전했다.

또 김광현이 잘 맞은 타구, 강하게 맞은 타구를 맞은 비율을 등수로 매기면 메이저리그 전체의 하위 24%에 포함될 정도로 낮다면 그가 계속 타자들로부터 약한 타구를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유럽축구 새 양대 산맥 음바페-홀란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집중됐던 시선이 이제 켈리안 음바페(23·파리 생제르맹-왼쪽)와 엘러 홀란(21·도르트문트)을 향하고 있다. 20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도르트문트(독일)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PSG)은 각각 홀란과 음바페의 활약을 앞세워 UCL 8강에 안착했다. 홀란은 이번 UCL 6경기에서 총 10골을 터뜨리며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음바페는 22세 80일의 나이로 메시(22세 286일)가 가지고 있던 기록을 깨고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UCL 25골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유럽축구 새 양대 산맥 음바페-홀란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 집중됐던 시선이 이제 켈리안 음바페(23·파리 생제르맹-왼쪽)와 엘러 홀란(21·도르트문트)을 향하고 있다. 20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도르트문트(독일)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PSG)은 각각 홀란과 음바페의 활약을 앞세워 UCL 8강에 안착했다. 홀란은 이번 UCL 6경기에서 총 10골을 터뜨리며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음바페는 22세 80일의 나이로 메시(22세 286일)가 가지고 있던 기록을 깨고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UCL 25골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제주도-제주Utd 연고 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는 제주유나이티드FC와의 새로운 연고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연고지 협약이 지난 1월31일자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연고지 협약 기간은 2022년 1월31일까지이다. 단 협약 만료 3개월 전에 제주도와 서귀포시, 제주유나이티드FC 중 1곳이 협약 연장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협

약은 1년씩 연장된다. 협약에 따라 제주유나이티드FC의 홈 경기장은 제주월드컵경기장이 되며 서귀포시는 구단 측에 천연잔디구장 2면을 무상제공한다. 또 제주월드컵 경기장 내 A보드 광고, 홍보물 부착·설치, 식음료 판매 공간도 무상으로 구단에 제공한다.

또 제주유나이티드FC는 매년 홈 경기 입장료 수입의 10%를 제주도에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자체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제주유나이티드FC는 2020년 시즌 K리그2 우승을 차지해 올 시즌 K리그1로 복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 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 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대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롱기'가 '어음'의 주파수와 '사용방법'을 잘 알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자선심의 심의번호 2020-GN180079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 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